[새 사상 새 로정 인솔]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 고품질 발전 실속있게 추진

해남 자유무역항의 중점 단지인 해구 강동신구가 한창 건설중이다. / 중앙인민방송넷

해남에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기획하고 포치하고 추진한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해 해남성으로 하여금 새 시대 중국 개혁개방의 시범으로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 동안 제도형 개방을 다그치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며 봉관(封关) 운행을 위해 만단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해남성의 자유무역항 건설은 초보적 규모를 형성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30여개 외자 기업이 해남성 해구와 삼아의 자유무역항 중점 단지를 찾아 홍보 행사와 고찰을 진행하고 건설 진척, 정책 문의, 협력 상황을 료해했다. 중국유럽동맹상회 전국 부회장 고지호는 유럽 회사도 현재 해남의 고품질 봉사와 생물의약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유럽 회사에 있어서 이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개방된 해남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 업체를 유치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남성에 새로 진출한 외자 기업은 루계로 6,534개에 달하고 평균 년간 성장폭이 65%를 기록했다.

올 2월 9일 해남성 무비자 정책은 재차 승격됐다. 해남성교통운수청 민용항공판공실 주임 왕군청은 경외 항로와 직통 항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 항로를 더 많이 개척하고 인원 래왕을 추진해 59개 나라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효과성을 나타내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 조치가 관철되면서 해남성의 외향형 경제는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올 2월말까지 해구세관을 통관한 '무관세' 화물 가치는 202억원을 넘었고 세금 감면 규모는 38억원에 달했다.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련 3년 동안 두자리수 성장을 가져오고 경외 변호사 업무허가증, 교원 취업자격증 등 10개 령역을 개방한 후 0의 돌파를 실현했다.

해남성상무청 청장 장빈에 따르면 다음 단계 해남성은 4대 기둥산업을 둘러싸고 대표적 외자 항목을 유치해 외향형 경제 발전을 확대한다.

박오아시아포럼 2024년 년례회의 기간 '동반자, 개방, 협력'을 주제로 한 글로벌 자유무역항 발전 포럼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였다. 해남성 박오아시아포럼 봉사와 활용 련석회의 사업 기제 지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왕대학은 글로벌 자유무역항 발전 포럼을 글로벌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 건설의 공공제품으로 만들어 해남 자유무역항의 글로벌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하련다고 말했다.

해남성은 자유무역항의 개방 정책과 자원 우세를 통해 신질생산력을 힘써 육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상업우주발사쎈터를 건설하고 있는 해남성 문창시는 운반로케트사슬, 위성사슬, 데이터사슬 산업을 구축하고 있고 해남 릉수에서는 전세계 첫 상용 해저 데이터쎈터 항목이 1기 공사를 마쳤으며 삼아시 아주만 과학기술단지에서는 심해 과학기술, 해양 지능장비 제조 등 신흥 해양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 뿌리내린 혁신기업은 이미 2,800개에 달한다.

삼아시 아주만과학기술단지관리국 부국장 장지민은 과학기술단지는 자연 우세와 국가급 플래트홈, 일부 중요한 산업봉사기구를 통해 두개 산업의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중앙인민방송

박오아시아포럼 참석자들 : 미래 기회는 중국에 !

"나의 미래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학회 크리스토퍼 토머스 선임연구원은 '박오아시아포럼' 2024년 년례회의 기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올해 포럼에는 전세계 6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거의 2,000명 되는 정·재계 및 싱크탱크 학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은 포럼 기간 모든 참가자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로씨야과학원 중국및현대아시아연구소 바바예프 소장은 "복잡한 도전 속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견 력량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이든 기술 발전이든 이곳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 대한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가?

'거대한 시장 보유',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산업 시스템 및 인재와 혁신 우위'… 포럼 기간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 경제는 강한 근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수상은 "중국 경제는 매우 좋은 발전 태세를 유지하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질생산력의 발전은 중국 경제의 핫이슈가 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투자는 수년째 련속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였고 첨단기술 기업이 약 40만개에 달한다.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리티움배터리 및 태양광 제품 등 '신 3종'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디지털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5G 가입자 보급률은 50%를 넘어섰다.

3월 26일 찍은 박오 령탄소시범구내 꽃봉오리 송풍기. 풍력을 모으는 데 쓰이는 꽃봉오리 송풍기는 도내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의 하나이다. / 신화넷

포럼 기간 '신질생산력'은 래빈들 가운데서 큰 화제를 모았다. 주중 토이기 대사 무사는 "신질생산력은 중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준비하고 현재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독일 머크그룹의 중국 지사장 마르크 호른은 "이번 년례회의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디지털화 등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실감했다."며 "우리는 크게 고무를 받았다. 이는 미래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국의 록색 발전을 직관적으로 느꼈다. 올해는 박오아시아포럼의 탄소 제로 시범구역이 운영된 후 개최한 첫 년례회의로 모든 회의장이 록색 전기를 자급자족하여 탄소 중립 회의의 목표를 달성했다. 사모아독립국의 정부신문 《사발리》의 레오타 만브레 기자는 현지의 탄소 제로 스마트 운영 쎈터 등을 돌아본 뒤 "전부 대자연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호텔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다.

현재 중국은 록색인프라, 록색에너지, 록색생활 등 분야에서 대규모 성장을 이루었고 형성된 투자 및 소비 시장은 년간 10조원에 달한다.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대외개방과 떼여놓을 수 없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를 계속해 축소하고 제조업 분야의 제한을 전면 철폐하였으며 외국 기업의 대우 제고 등 일련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올웨이즈컨설팅 리사 벤자민은 "경제 세계화는 도전에 직면해있으나 아시아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류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은 바로 그 중심에 있고 외자 기업을 놓고 말하면 이곳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 같은 소감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수는 34.9% 증가했다. 얼마전 폐막한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다국기업의 임원들도 중국 시장을 밝게 전망했다. 딜로이트(德勤) 중국 부총재 류명화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해 국내시장과 외국인 투자의 '쌍방향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다른 국가들에 거대한 시장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 국제방송

팽려원, 독일 백락중국어합창단 교사 및 학생 대표 만나

3월 28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의 부인 팽려원은 북경제35중학교에서 중국을 방문한 독일 백락중국어합창단 교사 및 학생 대표들을 만났다.

팽려원은 중국을 다시 방문한 독일 백락중국어합창단 교사와 학생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지난 10년간 노래로 우정을 쌓고 풍성한 결실을 맺은 성과를 축하했다. 팽려원은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합창단은 중국과 독일 문화교류의 가교가 되였고 중국과 독일 우정의 아름다운 명함이 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음악이란 황금열쇠로 중국어의 새 세상을 열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중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며 새 세대의 중국-독일 친선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단협회 회장 밀만은 합창단에 대한 팽려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함과 아울러 "노래를 부르며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독일 청소년들이 중국을 리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악과 중국어로 교류의 가교를 적극 구축하고 독일과 중국 청소년간의 상호 리해와 우정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창단의 학생 대표들은 팽려원에게 중국어 학습 상황과 경험, 중국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 중국어를 잘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팽려원은 교사 및 학생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학생들이 중국어를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으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귀국한 후 중국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중국과 독일 우의의 미담을 엮어갈 것을 격려했다.

합창단 학생들은 팽려원과 합창단의 10년간 우호 교류를 기록한 기념 사진첩을 팽려원에게 선물했다. 팽려원은 학생들에게 중국어 서예 작품을 선물하면서 중국어 학습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격려했다.

학생들은 중국어와 독일어 노래를 함께 불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독일 백락중국어합창단은 중국과 독일간 인적 교류 촉진을 취지로 독일 청소년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며 중국어를 배우는' 비영리단체로 언어와 문화 분야에서 량국간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국제방송

유엔환경계획 :

2022년 10억톤 이상 음식물 쓰레기 버려져

지난 2020년 8월 15일, 녕하회족자치구 은천시의 한 식당에 걸린 '음식물 남기지 않기' 포스터. / 신화넷

유엔환경계획(UNEP)이 3월 27일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서 발표한 최신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계에서 10억 5,000만톤에 달하는 음식물이 버려졌다.

보고서는 2022년 세계에서 1인당 평균 132키로그람의 음식물을 버렸고 이는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음식물 총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는 아직도 약 7억 8,300만명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인다면서 버려지는 음식물 중 가장 보수적인 평가로 먹을 수 있는 량을 계산하면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일 1.3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음식물 랑비가 발달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면서 특히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우 많다고 꼬집었다. 2022년 음식물 쓰레기중 60%가 일반가정에서 발생했고 그외 료식써비스 업소와 소매 판매 업소가 각각 28%, 12%를 차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음식물 랑비는 세계적 비극"이라면서 "기후와 자연에 막대한 대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와 랑비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년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 이는 항공업계 배출량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고서는 각 단계에서의 음식물 랑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오염·기후변화·서식지 파괴 등에 대처하는 국가행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